

Merck, 아시아 액정 공급능력 확대

대형 평면TV 시장 성장세 힘입어 판매증가 ... PDA · 노트북에도 적용

전세계 액정 공급의 69%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Merck가 액정 사업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 시애틀에서 열리는 연례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대형 평면 TV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한 액정 생산 설비 확장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Merck는 2008년까지 연평균 약 50%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2004년 말 독일 담스타트에 2억5000만유로를 투자해 최신 액정 제조라인을 설립하고 아시아에 3000만유로를 투자해 일본과 한국에 위치한 기존의 액정 혼합공장을 확장하는 한편, 타이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제 Merck의 액정 및 관련제품 판매량은 평면 TV 수요증가에 힘입어 2004년 1/4분기에 이미 2003년 대비 61%가 성장한 1억3600만유로를 넘어섰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3배나 증가한 액정 공급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세계 TV 시장규모는 약 1600억달러이며 LCD TV는 2005년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erck는 현재 디스플레이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가장 최신 액정기술인 VA(Vertical Aligned LCD Mode), IPS(In Plan Switching LCD Mode)의 개발 및 주 공급자이다.

또 특허를 완료한 신기술들은 대형 화면 TV 이외에도 PDA, 네비게이션 시스템, 핸드폰, 노트북과 모니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돼 Merck의 주도적인 액정공급 능력을 입증해주고 있다.

Merck Group의 성공에 대해 화학사업 부문 총책임을 맡고 있는 Thomas Schreckenbach 박사는 “Merck는 혁신적인 기술제공과 함께 항상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아시아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비결이며 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Merck와 고객 간의 신뢰와 결속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Merck의 화학사업 분야는 액정, 생명과학 및 시약, 안료, 그리고 특수정밀화학과 같은 하이테크 화학 부분의 4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한편, Merck Group은 전세계 58개국에 2만8300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2003년 7조2000억유로의 실적을 달성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27>